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5
SUMMER
제72호



KOREA
IMMIGRATION
SERVICE

한국살이 리얼톡
한국문학의 세계화
그 중심에 선 외국인 번역가

출입국 탐구생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임현인 주무관의 하루

출입국 in FOCUS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특강

출입국 ON AIR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뜨거운 햇살과 함께 녹음이 무르익는 여름의 기운이 짙어졌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시원한 바람처럼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매년 5월 20일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세계인의 날'입니다. 올해로 제18회를 맞은 기념식에서는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18개국 주한 외교사절을 비롯한 500여 명의 내·외국인이 함께 상호 존중과 조화의 가치를 나누는 뜻깊은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문화 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본부는 외국인의 인권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한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운영하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고충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외국국적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체류자격을 통합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의 사회응용과 사회통합 교육을 담당할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소통 능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한국어 교재를 개발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화 교재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직장 내에서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는 다문화 사회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며,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포용적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섬세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공존' 여름호와 함께 활기찬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Dear readers,

With the blazing sun and deepening greenery, the full atmosphere of summer has set in. Despite the sweltering heat, we hope your daily life is filled with joyful moments, like a cool breeze.

May 20 is designated as 'Together Day'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and respect between Korean citizens and foreign residents, and to build a society where everyone can live in harmony. This year marked the 18th anniversary of the celebration, held under the slogan "Dream Together, Korea Soars Higher." The event brought together over 500 Korean and foreign nationals, including diplomatic representatives from 18 countries, for a meaningful occasion to share the values of mutual respect and harmony.

To become a global leading nation suited to this multicultural era,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holds regular council meeting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promotion of the interests of foreign nationals. We also listen carefully to the voices of socially vulnerable foreign nationals and are committed to addressing their practical concerns.

To support the stable settlement of overseas Koreans, we are actively reviewing measures to integrate the two types of residence status currently granted based on nationality. We have also established the 'Support Center for Overseas Koreans' to provide social adaptation assistance and integration education for those living in Korea. Additionally, to improve communication skills among foreign workers, we are developing customized, field-oriented Korean language textbooks to be used as specialized materials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e hope these efforts will help foreign workers communicate more effectively in the workplace and adjust more smoothly to life in Korean society.

Looking ahead, the Korea Immigration Service will continue to shape a clear blueprint for a multicultural society and pursue well-designed, sustainable policies that foster an inclusive society where Korean citizens and foreign nationals can live together in harmony.

We hope the summer edition of the magazine "Gongzone," which highlights how the diverse members of our society live in harmony, brings vitality to your summer season.

CONTENT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5. SUMMER / VOL. 72

통권 72호(비매품)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5년 7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락처 02-2110-4019

주 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KIS+pecial

06 한국살이 리얼톡

한국문학의 세계화, 그 중심에 선 외국인 번역가
(까미 루카 & 라우라 마리아 슈뢰더 &
마리솔 모레노 오초아)

10 출입국 탐구생활

임현인 주무관의 하루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팀)

14 심포 여행

여름의 뜨거움과 열정이 가득한 여수

18 감동 한 스푼, 행복 두 스푼

재한 외국인 & 직원 미담 사례



06



20

KIS+tory

20 출입국 in FOCUS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특강

24 정책 한눈에 쏙

정주·취업·교육 3박자 갖춘 외국인 청소년 제도 개선

26 출입국 ON AIR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30 공감 돋보기

재한외국인의 일과 삶

32 세계인의 밥상

한 접시에 담긴 아프리카의 역사와 향신료

KIS+hare

34 이슈 Pick

출입국·외국인 정책 주요 뉴스

36 출입국 궁금타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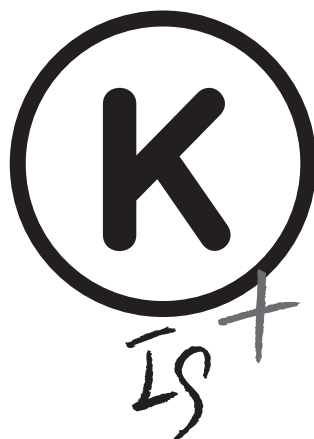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정책 Q&A

38 SNS 핫클릭! + 독자 이벤트

본부 SNS 채널 / 독자 참여 코너

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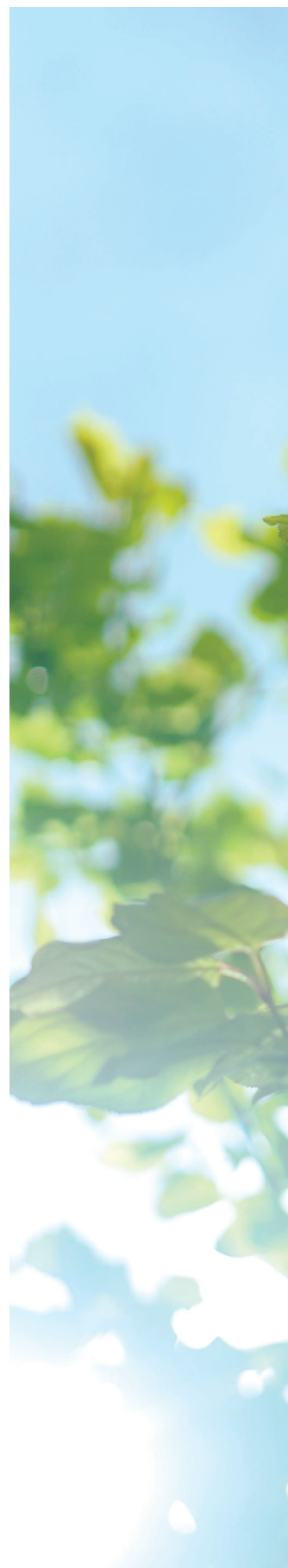


햇살 한 스푼을 얹어

반짝이는 햇살과 함께 다가온 계절, 여름이 웃음을 짓게 합니다.
찬란한 햇살이 하루를 깨우고, 초록의 나무들은 더 푸르게 숨을 쉽니다.
햇살은 따뜻함을 건네는 자연의 손길이자, 계절이 보내는 인사입니다.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햇살처럼, 여름은 용기 내어 말을 건넵니다.

“잘 지내고 있나요?”

계절이 한창인 여름,
당신의 일상에도 햇살 한 스푼 얹어보세요.
반짝이는 미소가 피어나는 계절이 될 거예요.





Laura
Maria
Schroeder

Camille
Luka

Moreno
Ochoa
Maria Sol



더 생생한 인터뷰 내용을
보고 싶다면
QR코드를 스캔해 주세요

언어를 넘어 문화를 잇다 한국문학의 세계화, 그 중심에 선 외국인 번역가

🇫🇷 까미 루카

🇩🇪 라우라 마리아 슈뢰더

🇪🇸 마리솔 모레노 오초아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의 소설가, 한강 작가가 역대 121번째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한강 작가의 수상 뒤에는 한국 고유의 정서와 말투, 느낌을 세계 각국의 언어로 생생하게 번역한 외국인 번역가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한강 작가처럼 아름답고 순수한 한국의 문학을 각자의 모국어로 번역하며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열정을 쏟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2024년 한국문학번역상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까미 루카, 라우라 마리아 슈뢰더, 마리솔 모레노 오초아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다양한 한국 문학을 번역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을 전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문화를 잇는 다리, 번역의 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학번역원은 매년 한국문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한 외국인 번역가들을 발굴하여 시상하고 있다. 한국 문학을 깊이 이해하고, 높은 수준의 번역으로 그 가치를 세계에 전달한 이들을 선정해 온 이 상은 어느덧 22회를 맞이했다.

2024년, 제22회 한국문학번역상 시상식에서는 문학 부문 번역 신인상 수상자로 세 명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 프랑스 출신의 까미루카, 독일 출신의 라우라 마리아 슈뢰더, 스페인 출신의 마리솔 모레노 오초아였다.

까미와 라우라는 각각 프랑스와 독일에서 한국학을 전공한 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문화콘텐츠 정규 과정을 수료했다. 마리솔은 스페인에서 동아시아 학과를 전공하고, 한국에서 석사 과정을 마친 후 현재는 게임 회사에서 번역가로 일하며 다양한 게임 콘텐츠를 스페인어로 옮기고 있다. 까미와 라우라는 한국문학번역원에서 국내외의 다양한 단편 문학과 웹툰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한 바 있다. 대표작도, 번역 일을 하게 된 계기도 서로 다르지만, 한국문학을 향한 애정만큼은 모두 깊고 진심하다.



“저는 초등학교 때 이루마 작곡가의 음악을 우연히 접하면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후에 다양한 한국 콘텐츠들을 접하다가 문학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죠. 마리솔과 까미도 비슷한 계기로 한국문학을 접했다고 해요. 저는 한국문학 중에서도 SF 장르를 좋아해서, 김초엽 작가님의 작품을 특히 애정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우연한 계기로 한국문학을 접하고 난 뒤, 이 좋은 작품을 친구나 가족에게도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번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마리솔은 “번역을 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자기 나라의 문화를 더 잘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이 생깁니다.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결국 번역가가 되고 싶어졌어요”라고 말했다.

임팩트 있는 표현, 그리고 단편 중심의 한국 문학

자국 문학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에도 관심이 많은 세 사람이, 왜 하필 한국문학에 매료되었을까. 세 사람은 공통적으로 ‘단편 중심의 문학이 주는 색다른 매력’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유럽에서 주목을 받는 작품이나 대중들이 사랑하는 작품은 대부분 장편 소설이다. 그래서 작가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알고 싶다면 여러 권의 책을 읽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은 단편 소설이 활성화되어 있어 한 권의 책만으로도 작가의 철학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짧은 분량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 임팩트 있는 표현과 감정을 드러내는 기술이 탁월하다. 한국 특유의 한(恨)의 정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흐름, 그리고 그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내는 방식은 독자에게 깊은 공감과 위로를 전해준다.



“젊은 작가들이 많다는 것도 한국문학의 특징인 것 같아요. 새로운 작가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분위기와 문화가 있어서 매년 신선한 작품들이 쏟아지죠. 그래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하는 작가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작품들을 프랑스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재미있기도 하고요.”

한국어의 독특함에서 비롯되는 기쁨도 있다. 한국어는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담아내는 표현력이 뛰어나 문학적 깊이를 더해주지만, 번역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섬세함이 큰 고민거리로 다가올 때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눈치’와 같은 단어다.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야 해서 번역하기 가장 까다로운 단어 중 하나다.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 역시 번역의 난관 중 하나다. ‘그’, ‘오빠’, ‘오라버니’, ‘형’, ‘당신’, ‘그대’ 등 분명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데도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호칭은 외국어로는 적절한 뉘앙스를 살리기 쉽지 않을 때가 많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성별 문제였어요. 한국문학에서는 성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표현이 많고, 이름도 중성적인 경우가 많아 성별이 끝까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한 작품을 번역할 때 저는 주인공이 남자인 줄 알고 번역을 다 끝냈는데, 마지막에 작가님께 성별을 확인했더니 여자라는 거예요. 결국 처음부터 다시 번역해야 했었죠.”

“꾸준히 번역하고 싶어요” 세 사람의 소박한 꿈

한국문학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에 대한 애정도 커졌다. 현재 한국에 살고있는 세 사람은 이곳에서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까미는 지난해 말에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하며, 출판사 주최로 열린 한강 작가의 작품 대담에 다른 번역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마리솔은 문학번역 신인상을 수상했을 때, 마침 제일 친한 스페인 친구들이 한국에 와 있어서 행복한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했다고 말했다. 라우라는 일상 속에서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한국인들에게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인정받을 때마다 큰 보람을 느끼며, 걸어진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한국에서의 삶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다. 세 사람 모두 한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외로움을 꼽았다. 한국문학과 한국에 대한 애정 하나로 고향을 떠나왔지만,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낯선 환경에서 일상을 보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두운 터널 같았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번역가로서 행복한 내일

을 꿈꾸는 세 사람의 꿈은 의외로 소박했다.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한국문학을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번역하고 싶다는 것이다. 최은영, 정세랑, 김초엽, 김보영, 김청굴 등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자신만의 언어로 옮기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삶이라 말하는 세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더불어 한국문학 번역을 새롭게 고민하거나 이제 막 시작한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도 전했다.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번역 수요도 점차 늘고 있지만, 번역이라는 작업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처음에는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답이 보이고,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Moreno
Ochoa
Maria Sol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된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번역은 단순히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작업이 아니라, 한 지역의 이야기를 우리 지역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학을 스페인어로 번역한다고 할 때, 한국 고유의 문화와 정서를 스페인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각색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결국 양쪽 문화와 언어를 모두 잘 이해하고 있어야 제대로 된 번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좋아하는 한국문학을 번역하며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이어가고 싶다는 까미 루카, 라우라 마리아 슈뢰더, 마리솔 모레노 오초아. 한국문학에 대한 그녀들의 열정과 애정이야말로 제2, 제3의 한강 작가를 세계 무대에 알리는 원동력이 아닐까. 낯선 한국 땅에서 자신만의 꿈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세 번역가의 밝은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Aiming to Foster Harmony between Migrants and Citizens

안전한 국경,

신뢰받는 출입국 행정의 중심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팀 임현인 주무관

바다와 함께 숨 쉬는 도시, 부산!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이자 최대 항구 도시로서, 해양 도시 특유의 정치와 활력을 간직하고 있다. 이런 부산에서 외국인들의 체류를 지원하고, 선박의 출입국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이다.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팀의 임현인 주무관이다. 그녀는 낯선 땅에 첫발을 내디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직접 뛰며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출입국 제도를 소개하는 라디오 코너가 정규 방송으로 편성되면서, 직접 방송에 출연해 이민자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고 부산청의 따뜻한 매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민자들의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지난 1년, '부산청의 얼굴'로 활약하며 누구보다 진심으로 일해 온 임현인 주무관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출입국 탐구생활

START



2024.9.3.

이대호 홍보대사 위촉

안녕하세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현인 주무관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뿌듯하고 아름다웠던 여정을 되돌아볼 예정입니다. 첫 기억은 조선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의 홍보대사 위촉입니다. 처음 준비해 보는 홍보대사 위촉이라 긴장도 많이 했지만, 부산을 대표하는 이대호 선수를 실제로 만나보고 인터뷰까지 나눌 수 있다니... 신기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첫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아주 뿌듯했던 기억이 나요.



2024.9.10.

사랑의 빵 만들기 기부행사, 글로컬 토크쇼

아시아공동체학교 학생들과 함께 직접 빵을 만들고 따끈따끈하게 구워진 빵과 쿠키를 포장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했던 행사입니다. 아이들과의 의사소통은 어려웠지만 함께 만든 쿠키는 정말 맛있었고 아이들이 모두 좋아해 주어 행복했어요. 정신없이 빵을 만들고 나서는 한성 일상이라는 문화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신라대학교 유학생들의 생생한 부산살이 경험담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무척 즐거웠지만, 너무 급하게 준비하느라 아쉬움이 많이 남은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2024.10.8.

부산 국제영화제와 함께한 '제1회 다시, 세계인의 날!'

상반기에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다면, 우리 부산청에는 선선한 가을맞이, 하반기 '다시, 세계인의 날!'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하는 영화 관람 행사였는데요. 허욱 팀장님이 손수 쓰신 두 장 남짓한 메일이 봉준호 감독의 마음을 움직여 직접 영상 편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스크린을 타고 전해진 봉준호 감독의 메시지가 행사에 참여한 500여 명의 이민자와 국민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절대 잊지 못할 행사였어요.





2025. 2. 20.
2025. 3. 21.

**부산MBC '부라보',
부산영어방송(BeFM) 'The Interview' 출연**

부산MBC의 '부라보(부산을 라이브로 보다)'와 부산영어방송 'The Interview' 는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된 TV와 라디오 방송이었습니다. 대본을 읽고 또 읽었지만 얼마나 긴장되었는지요. 특히 라디오방송은 영어로 진행해야 해서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영어 실력이 출중하지 않은지라 많은 연습이 필요했고, 사랑스러운 두 아들이 견학을 와서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부산청을 대표하여 출입국 업무와 행사들을 홍보할 수 있었던 의미있는 방송이었고, 개인적으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 일하는 어머니의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2025. 5. 22.

**사직야구장 애국가 제창 및
경기 관람 행사**

가장 바쁘게 뛰어다녔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사직야구장에서의 행사입니다.

특히, 청장님과 국적 수여자 등 다섯 분이 애국가 제창을 위해 그라운드로 들어갈 때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던지! 드넓은 야구장과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우리 출입국을 알릴 수 있었던 다시 없을 멋진 행사였습니다. 이를 뒤 열린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부산세계시민축제'도 인상 깊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임에도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성공적인 축제였어요. 우리 청에서는 페이스페인팅과 달고나 라떼, 바 이올린 연주로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습니다.



2025. 6. 26.

부산영어방송(BeFM) '4 Your Busan' 정규 코너 'Open Sesame!' 편성

마지막으로 부산영어방송 출연입니다. 지난 두 차례의 방송을 보고 부산영어방송에서 정규 편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격월로 제가 직접 출연해 한 국에 살고 계신 이민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평소 어렵게 느껴지는 출입국 관련 법률과 출입국·외국인정책을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재미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산청이 오랫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였는데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역사상 최초로 라디오방송에 정규 편성된 사례라고 합니다.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도 이민자들과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부지런히 발로 뛰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만난 사람들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공존을 지킵니다”

2024년 9월,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첫 발령을 받아 현재 조사과 기획·실행팀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조사하는 주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고, 동시에 그들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제가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계기입니다. 임용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첫 단속 현장이었습니다. 몸을 던져가며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던 선배님들의 모습은 제게 큰 충격이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고, 그날부터 진심 어린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통합팀 주도로 열린 사직구장 행사에서 청장님과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들이 함께 애국가를 제창한 것도 잊지 못할 순간입니다. 바이올린 연주로 그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으로서 국경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동시에 외국인과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저는 이 두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며, 부드러우면서도 강인한 마음을 가진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사과]
장민주 주무관



“출입국관리의 첫걸음, 그 의미 있는 시작”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하고 직렬을 고민하던 중 어느 날 공항에서 관복을 입고 멋지게 출입국 심사를 하던 분의 모습을 보고는 출입국관리직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다 SNS에서 ‘출입국 현장 투어’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의 실제 업무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는데, 특히 법무부 1호 감시정인 ‘황옥호’에 승선했던 경험이 인상 깊었습니다. 바다로 나가 외항에 정박한 선박을 대상으로 선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밀입국을 방지하며 국가의 경계를 지키는 모습이 멋있었죠. 그렇게 오랜 준비 끝에 2024년 9월, 제가 투어에 참여했던 바로 그곳,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 첫 발령을 받아 심사과에서 내·외국인의 출입국 심사 업무를 맡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관리과 총무팀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으로서의 경력이 아직 길지 않은 신입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업무를 충실히 배우고 경험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국가의 질서와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외국인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어디서든 필요한 인재로 인정받는 공무원이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관리과]
박진주 주무관



깊고 푸른 바다, 여름의 뜨거움과 열정이 가득한 여수

힐링과 낭만이 가득한 여수의 여름을 만나다

깊고 푸른 바다와 시원하게 뻗은 풍경, 높고 맑은 하늘을 뚫고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신 여름에는 여수를 방문해 보자. 여름 특유의 열정과 낭만에 마음껏 취할 수 있는 야경 명소, 돌산 공원과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향일암, 여름에도 정겹고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오동도를 소개한다.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소개합니다!

푸른 바다와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는 도시, 여수. 이곳에서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여수, 순천, 광양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 국적, 사증, 보호 등 다양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주소: 전남 여주시 무선로 265

◆ 문의: ☎ 061-689-5511 (야간 : 061-689-5551)

#1 Dolsan Park



낭만 가득한 여수의 여름밤을 품은 명소 ‘돌산공원’

해상케이블카

자산공원에서 돌산공원까지. 약 1.5km 구간을 왕복하는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를 즐길 수 있다. 유리로 만들어진 바닥을 통해 시원한 여수 바다를 감상하고 귀로는 공원에서 들려오는 운치있는 노래를 감상한다.

운행 시간 09:30 ~ 21:30

이 용 요 금	대인 왕복 17,000원
(일반캐빈 기준)	소인 왕복 12,000원

1987년 조성된 돌산공원은 87,000여 평의 부지에 조성된 여수를 대표하는 공원이다. 여수 시내에서 돌산대교를 건너 돌산도로 들어가자마자 만날 수 있다. 얇은 언덕 위에 조성된 공원이라 공원 전체를 둘러보려면 언덕을 올라야 하는데, 언덕을 따라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부담없이 방문할 수 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체력이 약한 이들도 나무 데크를 따라 걸기만 하면 전망 좋은 장소에 금세 도착할 수 있어 편안한 산책이 가능하다. 공원 중앙에는 돌산대교 준공기념탑과 1999년에 여수시가 만든 여수 타임캡슐 등 다양한 조형물이 방문객을 반긴다.

뜨거운 여름 해가 서서히 돌산대교 너머로 지고 나면, 돌산공원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모습을 드러낸다. 형형색색의 조명이 공원 곳곳을 수놓고, 운치있는 가로등 불빛이 여름밤의 낭만을 더한다. 특히 가장 멋진 풍경은 눈앞에 펼쳐지는 돌산대교다. 낮에는 평범한 다리처럼 보이지만, 밤이 되면 시시각각 변하는 화려한 조명이 다리를 장식해 이색적인 야경을 자랑한다. 돌산공원에 숨겨진 포토존을 찾아 소중한 사람들과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고, 장군도와 돌산대교의 환상적인 밤 풍경을 눈에 담아 간다면 여수의 매력을 한껏 즐기는 셈이다.

인생의 고민을 씻어내는 절경이 기다리는 곳 ‘향일암’

힘겹지만 오늘 만한 가치가 있는 산책로

향일암 공영주차장에서 향일암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리는 짧은 산책로다. 거리 자체는 약 500m에 불과할 정도로 짧지만, 대부분 계단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어 오르기가 마냥 쉽지는 않다. 계단길과 평지길이 있어 선택 가능하며, 전체 향일암을 둘러보는 데는 약 1시간이 걸린다.

운행 시간 04:00 ~ 19:00

주요 정류장 임포(향일암) 정류장

주요 시내버스 111번, 999번, 2번, 116번

향일암은 1300여 년 전인 644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처음에는 원통암(圓通庵)이라 불렸지만, 고려시대에 금오암(金鰲庵)으로 개칭했고, 조선 숙종 41년에 남해의 수평선에서 솟아오르는 해돋이 광경이 무척 아름답다고 하여 ‘태양을 향한 암자’라는 뜻의 향일암으로 불렸다. 돌산도의 끝자락에 자리한 향일암에서는 여수의 아름다움이 스며든 해맞이와 해넘이를 만날 수 있다. 향일암은 거북이가 경전을 등에 지고 용궁으로 향하는 듯한 모습의 금오산 기암괴석 절벽을 지나야 방문할 수 있다. 경사진 언덕에 놓인 가파른 계단을 오르고 시원하게 펼쳐진 여수 바다를 감상하며 걸음을 옮기다 보면, 바위틈 사이로 빛이 새어 나오는 좁은 해탈문이 등장한다. 무더위 속에서 힘겹게 올라온 고단한 여정의 피로가 절로 풀리는 순간이다.

인생의 번뇌를 상징하는 듯한 힘겨운 언덕을 모두 오르고 향일암에 도착하면 푸르고 드넓은 여수의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원효대사가 바라보며 참선을 했다는 바위 앞에서 길게 뻗어있는 수평선을 보고 있으면 나를 괴롭히는 고민들이 하찮게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2 Hyangiram Hermitage

#3 Odongdo Island



상큼하고 잔네 가득한 여수의 바다 ‘오동도’

오동도 한 바퀴! 돌아볼까?

오동도는 섬 외곽을 따라 순환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다. 입구에서 시작해 나무 데크를 따라가면 섬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구조다. 대체로 완만해 누구나 부담없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로 동백나무 숲, 해상보도, 시누대, 용굴 등 오동도의 주요 명소를 모두 지나가기에 꼭 한 번 도전해야 할 코스다.

난이도 ★★☆☆

거리 총 2.5km

코스 입구 - 용굴 - 해상보도 - 해안절벽 - 등대

겨울이면 동백꽃이 만개하는 오동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기점이자 종점이다. 섬의 모양이 오동나무 잎을 닮았고, 오동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오동도라는 이름이 붙었다. 길게 뻗은 방파제가 섬까지 이어져 있어 여수 시내에서 걸어서 방문해도 좋지만,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동백열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오동도 입구 선착장에서 유람선을 타고 해안 절벽과 바위를 관람한 뒤 섬 안쪽에 내릴 수도 있는데, 모터보트를 이용하면 보다 짜릿하고 스릴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섬 곳곳을 수놓은 동백나무와 참식나무, 후박나무, 팽나무 등 193종의 희귀 수목은 뜨거운 햇살을 잠시나마 막아준다. 여름에는 붉은 동백꽃을 볼 수는 없지만, 눈부신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푸른 바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섬 안쪽에서는 우산처럼 길게 뻗은 수목들이 뿜어내는 신선한 공기를 음미할 수 있고, 섬 외곽을 따라 걸으면 소리바위와 병풍바위, 코끼리바위, 지붕바위 등 독특한 얼굴을 한 기암절벽들이 방문객을 맞이한다. 파도의 침식이 만들어낸 자연의 선물로 이들 해식애의 형상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구국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의 전라 좌수영 본영이 여수에 있었던 만큼, 섬 곳곳에 남겨진 그와 관련된 흔적을 찾아볼 수도 있다.

한국에서 찾은 빛, 봉사로 다시 태어난 나

보코 하람의 테러로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과 분노 속에 살던 나이지리아의 한 소년.
그러나 그는 한국 유학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이 주는 진정한 기쁨을 깨달았다.
그가 걸어온 여정은, 상처를 희망으로 바꾸는 위대한 변화를 증명해 준다.

무하메드 하루나 함자
(나이지리아)



복수심 품었던 소년, 사랑을 나누는 청년으로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8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습니다. 나이지리아 북부의 테러집단 보코 하람의 폭격으로 우리 가족은 집을 잃었고, 모든 아이의 미래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목숨을 위해 남쪽으로 도망쳐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랑 많던 아이는 복수심과 분노로 가득 찬, 제 이익만 챙기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독기를 품고 열심히 공부해 대한민국 정부 초청으로 한국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 시간이 필요했던 친구를 따라 연탄 나르기 봉사를 갔다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을 돕는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봉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나눔의 행복을 깨닫게 해준 만남

여러 봉사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봉사는 저를 완전히 바꿔주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낯설어하던 아이들은 금세 “선생님, 피부 왜 이렇게 까매요?”, “머리카락이 스펀지 같아요” 같은 순수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려 시험 기간에도, 제 수업 시간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돌보려 가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저라면 상상도 못 할 일이었습니다. 아이들 덕분에 저는 다시 사랑 많고 순수했던 어린 시절의 저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대전 이민자 네트워크에 가입해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함께 봉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욱 긍정적이고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무언가를 혼자 가질 때보다 누군가와 나눌 때 그 행복이 훨씬 더 커진다는 사실요. 어린 시절의 암울했던 환경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했던 제가 한국에서의 봉사를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을 움직인 작은 친절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합니다.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든

이들의 훈훈한 소식을 전합니다.

신속한 업무 처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결해 준 박종민 주무관님

금요일 오후 5시가 넘어, 다른 행정기관의 착오로 외국인 거주지 이전 처리가 잘못되어 민원인이 항의하는 다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에서도 해결이 어려워 마지막 희망을 갖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박종민 주무관님은 업무가 끝날 시간이었음에도 사정을 듣고 친절히 절차를 안내하고, 팩스로 공문까지 처리하며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저희 기관의 실수로 민원인이 겪을 뻔했던 큰 불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rom. 문○○ 님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박종민 주무관

“퇴근 시간에 임박해 지자체로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신고가 잘못 처리되어 민원인이 주민센터에서 항의하고 있다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같은 민원 부서에 근무하기에 그 상황이 너무나 공감되었습니다. 바로 공문을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뒤 정정 처리를 신속하게 도와드렸는데,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게 민원인을 응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관할이 아닌 업무에도 공감하며 도움을 준 김민정 주무관님

소중한 가족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행정 처리의 어려움이 생겨 사무소를 찾았지만, 관할이 아니라는 차가운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정 주무관님은 여기저기 직접 전화하며 해결책을 찾아주시고, 앞으로의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와 눈빛에서 따뜻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받은 깊은 도움과 위로는 처음이었고,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From. 정○○ 님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민정 주무관

“관할 사무소가 아니어서 해결이 어려울 것 같은 민원인이 찾아오셨습니다. 눈물만 흘리고 계신 민원인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기 힘들었습니다. 즉시 관할청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다행히 두 기관 모두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느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보내주신 감사의 편지에 더욱더 힘을 내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주 배경 청소년 대상 멘토링 특강



“나도 할 수 있어요!”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로 그리는 내일의 꿈



법무부는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선배 이민자들로 구성된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1개국 39명으로 구성된 제3기 멘토단이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민자들의 든든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일, 이민자 멘토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코밀로브 베크조드는 경기도 안산의 관산중학교를 찾아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청소년들을 위해 유용한 팁과 진심 어린 조언을 전하며, 꿈과 미래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나눈 그날의 특강 현장을 함께 들여다봅니다.

웃음꽃 활짝! 미래를 여는 멘토링 교실

안산 관산중학교 시청각실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울려 퍼졌다. 오랜만에 모국어로 진행된 수업에 학생들은 유난히 높은 관심을 보였고, 강사로 나선 코밀로브 베크조드의 말이 끝날 때마다 큰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직접 질문을 하거나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하며 함박웃음을 지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베크조드에게 다가와 궁금한 점을 묻는 등 진지한 모습을 보였다. 이번 특강은 이주배경 청소년들의 한국 사회 적응과 진로 동기 부여를 위해 기획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총 91명의 학생들이 함께하며 오랜만에 마음껏 웃고 공감한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강이 열린 관산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약 86%가 다문화 가정 출신인 공립학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부모를 따라, 혹은 각자의 사정으로 고국에서 학업을 마치지 못한 채 중도 입국한 사례가 많다.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한 뒤 한국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라, 아직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거나, 한국 사회에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 베크조드 멘토는 이러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는 따뜻한 강의를 전했다. 그의 진심 어린 조언과 공감 가득한 이야기는, 아직 낯선 땅에서 방향을 찾지 못한 아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스무 살에 한국에 온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코밀로브 베크조드는 어느덧 13년 가까이 한국에서 생활하며, 국내에서 성공한 외국인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학교 재학 시절부터 활발한 대외활동을 펼쳐온 그는 전국 한국어 말하기 대회

에서 우승하는 등 두각을 나타냈고, 현재는 번역가이자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IT 컨설팅과 사업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한국어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글로벌 대기업에 입사, 안정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언어'라고 강조한다.

“학생들은 이미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한국어는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게다가 이 친구들은 모국어를 이미 유창하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까지 능숙해지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국어 실력만 제대로 갖춘다면 학업은 물론이고 진로 선택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베크조드의 강의는 한국어 학습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직접 느끼고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그는 평범한 유학생이었던 자신이 한국 대표단으로 외국을 방문하고, 대통령을 만나며, 대기업에 입사하기까지의 가장 큰 비결은 바로 '한국어'였다고 강의 내내 강조했다.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직접 번역 실습도 진행했다. 기억력을 활용한 참여형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손을 들며 웃음과 열정으로 수업에 몰입했다. 베크조드는 “한국에 살면서 한국어 못해 겪었던 어려움과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이번 특강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향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는 따뜻한 소감을 전했다.



감동 후기

이젠 나도 할 수 있어요

최 나스자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최 나스자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9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한국어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평소에 막연히 통역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왔는데, 오늘 특강을 들으면서 그 꿈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앞으로 한국어 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해서 꼭 멋진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빅토리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 한국에 온 최 빅토리아입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한국어도 모르고 친구도 없어 무서운 마음이 컸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신 선생님처럼, 저도 한국에서 언어를 열심히 공부해 언어와 관련된 멋진 직업을 갖고 싶습니다.

잘리나

저는 러시아에서 온 잘리나입니다. 한국에 온 지 8년이 되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낯설고, 특히 한국어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학교 수업은 전부 한국어로 진행됐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했고, 대답하는 것도 두려웠어요. 그런 저에게 단어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준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 지금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저도 오늘 감사님처럼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학생들과 함께한 뜻깊은 하루, 선생님이 전하는 뒷이야기

염경미

저는 관산중학교에서 다문화국제혁신교육부장을 맡고 있는 염경미입니다. 우리 학교는 전체 학생 중 약 86%가 다문화 가정의 자녀입니다. 이 중 결혼이주여성과 내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이나 국내 출생 아이들이 약 8%, 중도 입국 학생이 7% 정도이고, 나머지 71%가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학생들이입니다. 이 아이들은 집에서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대부분 모국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가 없으면 언어 습득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번역 프로그램이 탑재된 태블릿을 보급하고, 전문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도 운영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학생 스스로의 의지입니다. 이번 특강은 아이들이 자신과 비슷한 배경의 선배가 어떻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했는지 직접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고, 한국어가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강이 정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I Can Do It Too!”

- Stories of Children Dreaming of a Future in Korea

Mentoring Lecture fo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To support immigrants in settling smoothly in Korea, the Ministry of Justice operates the “Social Integration Immigrant Mentor Group,” consisting of immigrants who have successfully adapted to Korean society. The third cohort of the Mentor Group, made up of 39 mentors from 21 countries, serves as a reliable guide for newcomer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various social integration programs. On July 2, Komilov Bekhzod, a mentor from Uzbekistan, gave a lecture at Gwansan Middle School in Ansan, Gyeonggi-do. He shared practical tips and heartfelt advice with students beginning a new life in Korea, offering a message of hope for their dreams and future.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lecture held that day.

A Mentoring Class Filled with Laughter and Dreams of a Brighter Future in Korea

The audiovisual room at Gwansan Middle School in Ansan was filled with the joyful laughter of students. For many, it was the first time in a while that a class was conducted in their native language, which sparked a high level of interest and engagement. With each word from lecturer Komilov Bekhzod, the room burst into applause and cheers. All 91 students eagerly asked questions, participated with enthusiasm, and smiled throughout the session.

Gwansan Middle School, where the lecture took place, is a public school in which approximately 86% of the students come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Many of them arrived in Korea midway through their education—either accompanying their parents or due to various personal circumstances—without completing their studies in their home countries.

Having spent their early years abroad, many of these students still face difficulties with the Korean language and struggle to navigate career choices within Korean society. Mentor Bekhzod delivered a heartfelt lecture aimed at helping them recognize their potential and envision a brighter future. His sincere advice and relatable stories offered meaningful encouragement and hope to students still finding their footing in a new and unfamiliar environment.

Having arrived in Korea at the age of 20, Komilov Bekhzod from Uzbekistan has spent nearly 13 years building a successful life as a foreign resident. Since his university days, he has actively participated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earned recognition in various ways—including winning a national Korean speech contest. Currently, he works as

a translator and focuses on IT consulting and business development for developing countries. After earning a master’s degree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joined a major global company, where he continues to build a stable and meaningful career. In his mentoring activities for adolescents from immigrant backgrounds, Bekhzod emphasizes that the most crucial factor for successfully settling in Korean society is mastering the language.

“The students are already naturally exposed to Korean society, so no matter what path they choose, mastering the Korean language is a must. They’re already fluent in their native language, and if they can become proficient in Korean, they’ll have a tremendous advantage. It might feel unfamiliar and challenging now, but once they develop strong Korean skills, it will greatly benefit them—not only in their studies but also in planning their future careers.”

Bekhzod lecture was thoughtfully designed to help students personally experience the importance of learning Korean. He repeatedly emphasized that mastering the language was the key to his own success—from being an ordinary international student to representing Korea abroad as part of a delegation, meeting the president, and joining a major company.

To spark the students’ interest, he led a live translation activity. During the interactive session, which included memory-based activities, students eagerly raised their hands and participated with energy and laughter. Bekhzod shared, “I know all too well the difficulties and loneliness of living in Korea without knowing the language,” and expressed his heartfelt hope that this lecture would serve as a stepping stone for the students as they build their futures.

정주·취업·교육 3박자 갖춘 외국인 청소년 제도 개선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교육권 보장 연장 및 취업·정주 방안

법무부는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취업·정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민 2세대 등 외국인 청소년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취업비자로 전환하거나 국내 가족과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더불어 2025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3년 연장하는 제도도 시행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두 제도가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을 위한 정주 방안

✓ 제도 도입 배경은?

성년이 된 외국인 청소년인 특정활동(E-7) 등 취업 자격을 취득하려면 학사학위 또는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했다. 따라서 국내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이라도 성년 이후 대학에 진학하거나 유학(D-2)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실질적으로 국내 취업이나 정주가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4월 1일부터 국내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국내 성장 기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청소년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가요?

- ① 신청일 기준 18세 이상 24세 이하
 - ② 18세가 되기 전 7년 이상 국내에 체류
 - ③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경우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체류 허용(다만, 초·중·고 과정 중 어느 하나의 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과정을 이수하면 동일한 혜택을 부여)
- ※ 인구감소(관심) 지역에서 구직·연수(D-10), 취업(E-7-Y)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자격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

✓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란?

국내 체류자격 없이 체류하며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21년 4월 19일 처음 시행되었다. 최초 시행시 국내 출생 후 15년 이상 국내 체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합법적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였으나, 2022년 2월 1일 이후 국내 체류 기간 요건을 6년 또는 7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약 3,000여 명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한 이 제도가 2025년 3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법무부는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과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 개선하여 제도를 3년 연장하였다.

✓ 무엇이 바뀌나요?

- ① 요건을 충족한 아동에게 체류자격 부여시 해당 아동의 미성년 형제자매에게도 체류자격(G-1)을 동시에 부여
- ② 해당 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과 양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사회통합 교육에 참여하는 조건 부과
- ③ 국내에서 아동을 실제 보호·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A Brighter Future for Foreign Adolescents who Call Korea Home

Creating Smoother Pathways to Employment and Settlement and Ensuring Educational Access

The Ministry of Justice is pursuing two key initiatives to help foreign adolescents navigate life in Korea: expanding its initiative for an additional three years to uphold their educational rights and establishing smoother pathways to employment and long-term settlemen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announced a new measure to support foreign high school graduates who spent most of their formative years in Korea and chose not to pursue a university education, helping them transition more smoothly into employment and long-term settlement. The initiative allows foreign adolescents, including those from immigrant backgrounds, to either switch to an employment visa or continue residing in Korea with their family members—even if they choose not to pursue a university education. The Ministry also decided to extend the existing initiative for an additional three years, until March 31, 2028. This program aims to grant legal visa status to foreign children who have resided in Korea long-term, ensuring their access to education.

These two initiatives aim to lay the foundation for helping foreign adolescents grow with a sense of identity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They are also expected to promote social integration in a way that resonates with the public.

Creating Smoother Pathways to Employment and Long-Term Settlement for Foreign Adolescents Raised in Korea

✓ What is the background of the initiative?

Under the existing system, foreign adolescents who reached adulthood were required to either complete a bachelor's degree or have at least five years of work experience to qualify for an E-7 (special occupation) visa. Even if they spent most of their lives in Korea and became adults here, they were still required to either pursue a university education or complete an academic course under a D-2(international students) visa in order to work and settle in the country. On April 1, 2025, the Ministry unveiled a revised initiative allowing foreign adolescents who were raised in Korea and complet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the country to continue residing here.

✓ Who is eligible?

- ① A foreign national aged 18 to 24 as of the date of application
- ② A foreign national who has resided in Korea for at least 7 years before the age of 18
- ③ A foreign national who has completed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Applicants who meet all of the above requirements are eligible to stay under D-10(Job-Seeker) or E-7-Y (Employment) visas. Those who have not completed only one of the three required education levels (elementary, middle, or high school) may still be eligible for the same visas if they successfully complete Level 5 of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 Foreign nationals who have resided for at least four years in designated depopulation regions or areas of concern for depopulation under the D-10 (Job-Seeker) or E-7-Y (Employment) visas are eligible to apply for the F-2-R (Region-Specific Foreign Talent) visa, which supports long-term settlement in those regions.

Ensuring Educational Access for Foreign Children Residing Long-term in Korea

✓ What is the purpose of the initiative?

The initiative was first introduced on April 19, 2021, to expand educational access for foreign children attending school in Korea without legal residency status. Initially, the program targeted children who had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15 years since birth, granting them eligibility for legal status. On February 1, 2022, the residency requirement was eased to include those who had lived in Korea for more than six to seven years, significantly broadening the program's reach. As a result, over 3,000 children have benefited from the initiative. Originally set to end on March 31, 2025, the Ministry reviewed challenges encountered during implementation and gathered feedback from the field. Based on this assessment, it decided to improve and extend the program for an additional three years.

✓ What are the changes?

- ① When children who meet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re granted residence status, their underage siblings will also be granted a G-1 visa.
- ② Parents of eligible children are now required to participate in social integration education. This new requirement is intended to ensure that parents continue to provide care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ir children.
- ③ Parents who have failed to care for or protect their children while living in Korea will not be eligible under the revised initiative.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법무부는 지난 5월 20일,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인의 날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미 있는 행사로, 올해도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많은 이들의 공감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기쁨과 배려가 가득했던 기념식 현장, 그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자.



#1 모두의 꿈이 어우러진 뜻깊은 기념식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김연진 아나운서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행사장 야외에는 행사 취지와 유공자 포상 내역을 소개하는 전시가 마련되어 방문객들의 이해를 도왔고, 참가자들이 특별한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도 함께 운영되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18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 대표, 필리핀 이민국장을 비롯해 내·외국인 약 5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본격적인 기념식에 앞서, 한국·중국·러시아 등 6개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안녕?! 오케스트라'의 특별 공연이 펼쳐졌다.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한 이 오케스트라 팀은 '오블라디 오블라다', '홀로아리랑', '트레팍'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하며 진심 어린 무대를 선사했고,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다.

기념식은 개회 세리머니를 시작으로 주제 영상 상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기념사, 내·외빈 축사, 유공자 포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 세리머니에서는 기념식에 참석한 주요 내빈들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세계인을 상징하는 꽃잎을 피워내는 홀로그램 미디어 퍼포먼스가 펼쳐졌다. 이어 상영된 주제 영상에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았다.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



기념사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회통합이 중요한 과제”라며, 이민자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이민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아르투르 그라지우크 주한 폴란드 대사대리가 축하사에 나섰다. 그는 폴란드 출신 마리안나 수녀의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을 축하하며, 세계인의 날 기념식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이어 제프 로빈슨 주한 호주 대사도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호주 국적 이민자를 축하하며 진심 어린 축사를 전했다.

재한외국인의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에 헌신한 이들을 위한 총 17점의 유공자 포상

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재한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회통합에 기여해 온 개인 및 단체에 총 17점의 포상이 수여되었다. 개인 부문 대통령 표창은 30여 년간 농촌·산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오며, 어려운 이주민들의 정착을 도왔던 마리안나 수녀에게 돌아갔다. 마리안나 수녀는 이번에 '올해의 이민자상' 수상자로도 선정되어 의미를 더했다. 또한, 34년 동안 꾸준히 무료 치과 진료 봉사를 실천해 온 변영남 치과의사도 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어 귀감이 되었다. 단체 부문 대통령 표창은 구마·경북 지역에서 50년 가까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과 의료 협약을 통한 복지 지원,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 폭넓은 활동을 펼쳐온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센터장 송양업)가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한용길 제주이주민센터 센터장, 정벤자마트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이민자네트워크 회장, 박정선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회통합지역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해 개인 4점, 단체 3점이 수여되었다. 이어 법무부장관 표창은 개인 5점, 단체 2점으로 총 7점이 수여되며, 이주민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함께 기렸다.



이어진 축하공연에서는 첫 순서로 한국, 홍콩, 인도네시아 등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글로벌 9인조 보이그룹 '소디엑'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멤버 한 명이 다리 부상 중임에도 열정 가득한 무대로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기념식의 마지막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과 이민자네트워크 회원들로 구성된 '해피스타트 합창단'이 장식했다.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오른 단원들은 아름다운 화음으로 진정된 소통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며, 세계인의 날 기념식의 대미를 따뜻하게 장식했다.

'함께 꿈꾸는 미래,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식은 내·외국인 500여 명이 함께한 뜻깊은 자리였다.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이들이 한데 모여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그려보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민자와 내국인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민 행정의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민자의 인권과 가치가 존중받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밝게 펼쳐질 것이다.



현장에서 만난 참가자들의 한마디!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各國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인내소

세계인의 날 기념식은
외국인을 위한 행사 그 이상으로,
이민자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세
계인의 날처럼 내국인과 외국인
이 함께 어우러지고, 서로를 이
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행사
가 더욱 많아지기를 기대할
게요.



옥나리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외국인들이 서로를 이
해하고 통합할 수 있는 뜻
깊은 계기가 된 행사였어요.
한국에 나와 같은 고민을 안
고 살아가는 외국인들이 이
렇게 많은 줄은 미처 몰랐습
니다. 앞으로는 전시나 체험
부스 같은 더욱 활동적인 프
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면
더 풍성한 행사가 될 것 같
아요.



하니프

국적을 떠나 모두가 함께 어울려 네트워킹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뜻깊은 자리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외국인들
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기를 기대합니다.



루이스

세계인의 날은 그 이름처럼 세계 각국의 사람들
이 함께 미래를 꿈꾸며 공존의 길을 모색하는 날입니다.
다민족 사회로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어떻게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나누는 뜻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일과 삶

체류외국인(장·단기) 수가 2025년 6월 기준 273만 명을 넘어서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일상 속으로 깊이 스며들고 있다. 관광객이 아닌 이웃으로서, 오늘도 한국 사회의 일상과 산업을 함께 이끌어가는 외국인들. 이들의 체류 실태와 고용 현황은 어떤 모습일까? 다양한 체류자격을 지닌 외국인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되짚어본다.

자료 출처

통계청 <2024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



체류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조건들

상주 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구분해 보면 성별, 연령, 교육 수준, 국적, 거주 지역 모두에서 뚜렷한 차이가 드러난다. 방문취업자는 남성이 57.3%, 재외동포는 74.5%가 한국계 중국인이며, 수도권(특히 경기도)에 집중 거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비전문취업자는 90.9%가 남성이며, 베트남 및 기타 아시아권 국적이 다수를 차지한다. 유학생은 15~29세의 청년층이 주를 이루며, 서울 지역에 많이 거주한다.

전문 인력은 대졸 이상 비율이 59.4%로 가장 높았고, 전문 인력과 기타를 제외한 모든 체류 자격에서 고졸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재외동포는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높아 노년층의 체류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체류 유형별로 인구학적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며, 이는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체류자격별 상주 외국인 특징

성별

비전문취업
90.9%

전문인력
71.8%

방문취업
57.3%

결혼이민
79.6%

유학생
53.3%

주요연령대

방문취업
50대 50.4%

비전문취업
30대 45.5%

재외동포
60세 이상 37.7%

유학생
15~29세 90.1%

주요국적

방문취업
한국계 중국 86.2%

비전문취업
기타 아시아 86.3%

재외동포
한국계 중국 74.5%

거주지로 알 수 있는 정착의 형태

거주 형태에서도 체류자격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방문취업자와 재외동포는 일반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는 비중이 각각 85.2%, 72.5%로 높았으며, 안정적인 거주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반면, 비전문취업자는 기숙사 거주 비율이 47.3%로 가장 높았고, 무상 거주 비율도 77.1%에 달해 고용주 제공 숙소에 의존하는 모습이 뚜렷했다.

특히 비전문취업자의 경우 직장 동료 등 기타 동거인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63.8%로 가장 높았고, 가족·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단 2.1%에 불과해 가족과의 분리 거주 형태가 두드러졌다. 이는 고용 형태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생활 방식의 차이로 해석할 수 있으며,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계층임을 시사한다.

주요거처 및 거주 형태

주요 거처			
방문취업 일반 주택	85.9%	비전문취업 기숙사	47.3%
재외동포 일반 주택	71.5%	유학생 일반 주택	73.1%
거주 형태			
방문취업 전월세	85.2%	비전문취업 무상	77.1%
재외동포 전월세	72.5%	유학생 전월세	92.3%

고용 현황과 경제활동

고용과 관련해서는 비전문취업자(99.7%)와 전문인력(99.1%)의 취업자 비중이 매우 높아, 체류 목적이 뚜렷하게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유학생은 비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79.7%에 달해 대부분이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취업자의 경우 실업자 비중이 5.7%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고용의 지속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영주자격자와 재외동포도 각각 3.8%의 실업자 비중을 기록하며, 일부 체류 유형에서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전체 외국인 취업자 중 가장 큰 비중(29.9%)을 차지하는 비전문취업자는 산업 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과제다.

항목	비전문취업	전문인력	방문취업	
취업자 비중	99.7%	99.1%	74.4%	

항목	방문취업	유학생	영주	재외동포
실업자 비중	5.7%	4.1%	3.8%	3.8%

체류 목적 따른 한국어 실력

외국인의 평균 한국어 실력은 5점 만점 기준 3.4점으로 나타났다. 영주자격자(4.3점)와 재외동포(4.2점)는 비교적 높은 실력을 보였고, 비전문취업자와 전문인력은 모두 2.8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 취득 경험은 유학생(55.6%)이 가장 높았고, 전문인력(30.1%)이 그 뒤를 이었다. 체류 목적에 따라 한국어 학습 동기와 실력 수준이 크게 갈리는 양상이다.

한국어 능력 시험 급수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55.6%	전문인력	30.1%
-----	-------	------	-------

한국어 실력

영주	재외동포	방문취업	비전문취업	전문인력
4.3점	4.2점	3.8점	2.8점	2.8점

한 접시에 담긴 아프리카의 역사와 향신료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시원한 바다와 계곡으로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방 안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어놓고 마음 편히 늘어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요리는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낭만적인 선택이다. 편안하고 시원한 방에서 이색적인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 평소 접하기 힘든 아프리카 음식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지역별 특색이 살아 있는 아프리카의 레시피

아프리카는 홍해와 지중해, 인도양, 대서양으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륙이다. 아프리카는 대륙 전역에 약 3,000개의 부족이 살고, 부족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 2,0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언어가 존재할 정도로 문화적 다양성이 풍부하다. 광활한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약 10만 종이 넘는 식재료가 수확되어 세계의 맛을 고루 느낄 수 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인공감미료나 조미료를 넣지 않은 옥수수, 쌀, 수수 등이 주식으로 사용된다. 주식과 함께 야채나 고기를 볶거나 끓여 만든 간단한 반찬을 곁들여 먹으며, 아침과 점심보다는 저녁에 푸짐하게 먹는 문화가 있다. 잘 차린 저녁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남아 있어 제대로 된 현지식은 가정집을 방문해야 맞출 수 있다.



중앙아프리카 푸푸(Fufu)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에서 주식으로 먹는 음식이다. 카사바나 옥수수 전분을 뜨거운 물에 풀어 만든다. 푸푸 자체는 딱처럼 쫄쫄한 식감을 가지고 있지만,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매운 수프나 스튜, 소스와 함께 먹어야 한다. 가나와 토고의 국민 음식 중 하나다.

아프리카
지역별
대표 음식

서아프리카 줄로프 라이스(Jollof rice)

감비아,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서아프리카 국가에서 많이 먹는 쌀 요리다. 다섯 가지에서 많게는 열 가지의 향신료가 들어가는 일종의 볶음밥이다. 나라마다 만드는 방법에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서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에서는 '어느 나라의 줄로프 라이스가 더 맛있는가'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대회가 있을 정도로 대중적인 요리다.





동아프리카 수쿠마위키(Sukuma wiki)

동아프리카, 특히 케냐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다. '수쿠마'는 콜라드 그린 또는 케일을 의미하는데, 케일을 물에 살짝 데친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볶은 채소 요리다. 양파나 토마토 같은 재료를 추가하기도 한다. 한국의 김치와 같은 음식으로 옥수수죽인 우갈리와 궁합이 좋아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



+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어 보기 +



동아프리카의 대표 주식 '우갈리'

우갈리(Ugali)는 옥수수가루를 끓는 물에 넣어 반죽해 만드는 동아프리카의 대표 음식이다. 가격이 저렴하고 조리법이 간단해 탄자니아나 케냐, 우간다, 르완다 등 스와힐리어권 국가에서는 일상적으로 먹는다. 수수나 기장 가루로 만들기도 하지만 현재는 생산성이 좋은 옥수수를 주로 사용한다. 소금 간 외에는 거의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 그냥 먹으면 담백하고 밍밍한 맛과 함께 식감이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수쿠마위키나 소금 간을 한 삶은 콩, 야채, 생선 또는 고기를 곁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매일 먹는 쌀밥 외에 다른 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이색적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면 우갈리를 만들어 보자.

◎ 소요 시간: 15~20분 내외

◎ 난이도: 중하(★★★☆☆)

◎ 주요 재료: 물 1L / 버터 60g / 옥수수 가루 500g / 소금 약간

만드는 방법

- ① 냄비에 물을 3/4정도 붓고 끓이다가 버터와 소금을 넣고 더 끓인다.
- ② 옥수수가루 250g과 남은 물을 넣고 나무주걱으로 저어가며 부드러운 반죽이 되도록 섞는다.
(옥수수가루를 체에 걸러 사용하면 더욱 부드러운 우갈리를 만들 수 있다.)
- ③ 나머지 옥수수가루를 조금씩 넣으며 반죽이 되직해질 때까지 끓인다.
- ④ 반죽이 되직해지면 불을 줄이고 떡처럼 뭉쳐질 때까지 저어가며 익힌다.
- ⑤ 뭉쳐진 우갈리를 접시에 담아 스테이크나 다른 반찬과 함께 내놓으면 완성!



2025
SUMMER
Vol.72

KIS NEWS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 확대 시행

01



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非은행권)으로 확대한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 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이다. 2023. 9. 18.부터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2025.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됨에 따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
(www.immigration.go.kr),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02

법무부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국어원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언어 능력 향상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재' 중급 단계를 새롭게 개발한다. 다양한 근로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만나 근로자들이 일상생활과 업무에서 자주 접하는 언어 표현, 문화적 요소, 의사소통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상황에서 유용한 어휘와 문형, 대화문, 문화 이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교재에 담을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교재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특화 교재로 활용될 예정이며,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재가 일반 이주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번 교재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특정 집단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덧붙여 근로자의 국가, 인종, 문화 등을 세심하게 살펴 교재를 구성할 예정이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방소멸 대응 업무협약 체결

04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30일(금)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이하 지역혁신프로젝트)'에 선정된 31개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혁신프로젝트는 기초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특색을 살려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중기부·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가 공동으로 선발하고 기업지원(중기부), 외국인력 공급(법무부), 인프라 구축(행안부·농식품부) 등 부처별 정책수단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한다. 이날 '지방(농촌)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혁신프로젝트 발대식'은 작년 공모를 통해 선발된 우수한 30개 지역혁신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기념하기 위해 4개 부처와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했다.

20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실시

03

법무부는 2025.4.14.~6.29.(77일간)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법무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참여)을 실시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11,253명, 불법 고용주 등 2,289명을 포함하여 총 13,542명을 적발했다. 이번 정부합동단속 기간 동안 불법체류 및 취업으로 단속된 외국인 총 11,253명 중 9,525명은 강제퇴거 등 출국 조치, 1,728명은 범칙금 처분 등을 하였다. 또한 불법고용주 총 2,26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 약 101억 원을 부과했고,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 취업·입국 알선자 등 26명을 적발했다.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 간담회 개최

05



법무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인 '외국국적동포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이원화된 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체류자격 통합'에 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6월 25일(수)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단장의 주재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동포정책에 대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어 능력 입증과 체고 방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적근거 마련 등 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 통합과 제도 시행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안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 이것이 궁금해요!

영주증 재발급

체류 허가 조건

유학생 부모 초청

F-3 비자

출국 중 민원신청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사례를 통해 쉽고 간편하게 알아보자.

#체류민원

#해외 체류

#민원 심사 중 출국

Q. 출입국 관서에 민원 신청을 했는데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심사를 진행하거나 다시 입국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A. 민원 심사 중 신청인이 출국한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민원은 심사가 중단되거나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종결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재입국 여부 등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해당 민원을 장기간 미결 상태로 둘 수 없고, 심사 중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즉시 보완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국 일정을 사전에 고려하여 민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변경

#출국 상태

#민원 대행 신청

Q. 현재 출국 중인 상태인데 귀국 전에 체류 자격을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각종 체류 허가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국내에 체류 중이어야 하며, 출국 중에는 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의 대행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유학생 부모 초청

#F-3 비자

#동반가족 체류

Q. 저는 D-2 비자로 석사 과정 중입니다. 부모님을 장기 체류 비자로 초청이 가능한가요?

A. 국내 대학의 학사 이상 학위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로 충분한 재정 능력 및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동반에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부모님을 동반(F-3)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영주자격

#영주증 재발급

#유효기간

Q. 영주권자도 체류 기간 연장 등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 내에 재발급을 받지 않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내 체류외국인을 위한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재한외국인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이용 방법: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45

상담 시간: 평일 09:00~22:00

상담 언어: 한국어 포함 20개국 언어* 안내

(18:00 이후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만 안내)

* 한국어,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태국어, 일본어, 몽골어, 인니어, 프랑스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러시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SNS 핫클릭!



제18회 세계인의 날 미담사례집 발간



@immigration_1345



국경을 넘어 마음을 나눈 순간들,
《세계인의 날 미담 사례집》에서
만나보세요~



대한민국 비자 내비게이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종류도 많고, 알기도 어려운 비자!
한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국민소통 플랫폼 '모두의 광장'



@immigration.kr



국민의 의견을 국정과제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온라인 소통 창구

공존 라운지①

독자 이벤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지 <공존> 2025년 여름호를 보신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 주세요. 가장 재미있는 콘텐츠, 유용한 정보, 아쉬웠던 점 모두 좋습니다. <공존>은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어겠습니다.

참여 기간 : 2025년 8월 29일(금)

참여 방법 :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or 유튜브 계정 팔로우(구독)!

②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물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③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or 유튜브 채널 공존 이벤트

게시물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벤트 혜택 : 독자 의견을 남겨주신 분 중 5명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 2025년 9월 10일(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인스타그램 or 페이스북 or 유튜브 계정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공존 라운지②

퀴즈 타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소식지 <공존> 2025년 여름호를 읽고 퀴즈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이번 호 콘텐츠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Quiz

법무부가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선배 이민자들로 구성된 '○○○○' 이민자 멘토단'을 운영하고 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① 글로벌화 ② 통합교육 ③ 사회통합 ④ 정착지원

참여 기간 : 2025년 8월 29일(금)

참여 방법 :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서 <공존>에 관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당첨자 발표 : 2025년 9월 10일(수)



참여하기

출입국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주의

- ☑ 법무부 부서 및 출입국 관서로 발신번호 조작
- ☑ 자동 음성 안내 송출 후 상담원(직원사칭) 연결
- ☑ 여권도용, 출국금지, 검찰출석 등 수법 다양
- ☑ 개인정보 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위는 지금까지 확인된 사례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STAY ALERT FOR VOICE PHISHING SCAMS

BEWARE OF THE FOLLOWING TACTICS USED BY SCAMMERS:

- ☑ Using the phone numbers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mmigration offices
- ☑ Impersonating immigration officials
- ☑ Mentioning stolen passports, travel bans, visits to a prosecutor's office, or others
- ☑ **Never provide your personal information over the phone**

These are the tactics we've identified so far, but there may be mor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